

다양한 문화예술 시민들이 향유한다

전주시, 전주역 광장·한옥마을 등 다중집합장소·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이동형 전시장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형 갤러리를 운영한다.

전주시는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 조성을 위한 콘텐츠 확보와 문화예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주역 광장과 한옥마을 등 다중집합장소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형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 1개 전시장을 제작·운영할 계획이며, 전시 작가는 3월 중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찾아가는 이동형 전시장이 연중 쉬지 않고 전주역 광장과 전주 첫 마중길 고속버스터미널 한옥마을 팻말예술공간 등의 다중집합장소와 도심에서 벗어나 있어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 등을 찾아가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예술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와 작품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이동형전시장을 생활 속 열린 미술관으로 만들어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졌던 예술 작품을 생활공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술관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찾아가는 이동형전시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 설명 지난 28일 전남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열린 '2017 이클레이 회원 정기회의'에 좌장으로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에너지 지평문화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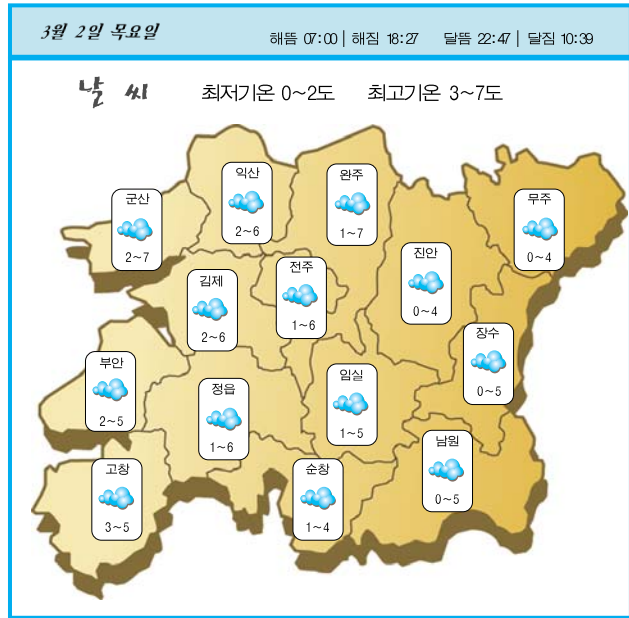
이와 관련,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시 문화의집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주요 광장과 거리 등 7곳에서 '지방 없는 공연장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과 대학로, 아중호수, 서부신시가지 비보이·홍산광장 등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시민 개인과 문화예술관련 단체, 시민·학생동아리 등이 참여해 길놀이와 버스킹 등 각종 공연·전시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찾아가는 이동형전시장 운영과 지방 없는 공연장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아시아 문화심장터 전주에 걸맞은 전주의 상징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작가들에게는 창의적·실용적 발표기회를 확대해 힘을 실어주고, 전주시민 및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동형전시장이 운영되면 아시아 문화심장으로 조성되는 구도심 등 전주 곳곳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91명으로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120명, 전산직 4명, 사서직 3명, 공업직 19명, 시설직 12명, 식품위생 6명, 운전직 27명이다. 이 중 공업직 4명과 시설직 2명은 특성화고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이며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 원서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전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고 필기시험은 6월 17일, 면접시험은 8월 3일에 각각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3월 9일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도내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평가 영역은 고학년 이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사회, 과학)이며 고 23학년은 국어 수학(가/나)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오전 8시40분부터 시작해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된다.

도내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 실시

도교육청, 올해 33개 학교 109억원·내년부터는 해마다 150억씩 투입 계획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33개 학교시설 내진 보강에 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한다.

도교육청은 따르면 도내 전체 내진 보강 대상건물은 2,493동이며 이 가운데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지난해 기준 82.4%(2,055동)이다. 대상 시설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교사, 체육관, 급식사, 급식시설, 강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2031동 중 1,049동(86.2%), 중학교 549동 중

457동(83.2%), 고등학교 680동 중 527동(77.5%), 특수학교 33동 중 22동(66.7%)의 내진보강이 필요해 학교급이 낮을수록 내진보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에는 총 2,7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109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시설 내진 보

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매년 150억원씩을 투입하더라도 2034년쯤이나 전체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진재해로부터 학교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내진구조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3월 개학과 함께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습준비물 구입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위화감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필요한 각종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풀 가위 칼 등 공통품목과 색종이 등 종이류, 가락·간판 등 악기종류, 물감 칠판 등 미술과 과학용품이다.

도교육청은 안전관리 기준을 통과한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한편 원순장아용 물품도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코레일 전북본부 사회공헌유공 직원가족 초청 가족공감행사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장영철)는 본부 회의실에서 사회공헌활동 유공 직원과 가족 24명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2017 제1차 가족공감'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6년 코레일 사회공헌 활동에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한 익산전차사업소 장상태 과장 가족 등

총 24명을 초청해 1부 행사로 장영철 본부장의 환영사와 초청직원의 업무 모습, 가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편지를 시청했다.

2부 행사는 여수로 떠나는 육해공 관광 기차여행으로 구성되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